

오프셋인쇄 견본 — 사륙판

산돌 정체 530

2019년 5월

(주)산돌

송미연×박수현×김초롱×심우진

!

「소년」——다니자키 준이치로, 민음사, 2018

벌써 이십 년 전의 일이다. 내가 겨우 열 살이나 되었을까. 가키가라초 2번가 집에서 스이텐구 뒤쪽 아리마 학교에 다녔을 때였으니 말이다. 흐릿하게 안개 낀 하늘을 뚫고 나온 햇살이 닌교초 거리에 늘어선 상가의 푸르른 포렴을 따스하게 비추는, 막연하고 꿈같은 동심에도 어쩐지 봄이 느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었다.

화창하게 갠 어느 따뜻한 날이었다. 졸음이 쏟아질 것 같던 오후 수업을 마치고 먹물이 잔뜩 묻은 손으로 주판을 쥐고 학교 문을 막 나서려고 할 때였다.

“하기와라 에이!”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허겁지겁 뒤쫓아 왔다. 같은 반 아이, 하나와 신이치였다. 입학 당시부터 소학교 4학년인 지금까지 시중드는 하녀가 한시도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소문난 겁쟁이에다가 아이들에게는 소심쟁이에 울보라는 놀림을 받으며 함께 놀 친구 하나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좀처럼 말을 걸어온 적이 없는 아이였기에 의아한 생각에 그 아이와 하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 집 정원에서
오곡신 축제가 열리거든.”

신이치는 마치 주홍 비단 끈으로 묶어 놓은 것 같은
조그마한 입술로 다정하지만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건넸고 그 눈빛은 간절해 보였다. 언제나 주눅이 들어
외톨이로 있던 아이가 어째서 이런 뜻밖의 말을 건네는지
잠시 당황해서 그 아이의 표정을 읽어 내기라도 하려는듯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평상시에는 겁쟁이니 뭐니
험담을 해 대며 마구 괴롭혔지만, 막상 눈앞에 놓고 보니
역시 부잣집 도련님답게 품격 있고 고상해 보였다.
명주로 된 통소매에, 하카다에서 진상품으로 올라온
허리띠를 매고 줄무늬가 들어간 노란색 비단 겉옷에
옥양목으로 된 흰색 버선과 겨울용 조리를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뚝한 코에 희고 가름한 얼굴과 잘
어울려서 새삼스레 그 품위에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
넋을 잃고 말았다.

“하기와라 도련님, 저희 도련님과 함께 놀아
주시겠어요? 실은 오늘, 저희 집에서 축제를 연답니다.

되도록이면 얌전하고 귀여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모시고 오라는 마님의 분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련님께서 하기와라 도련님을 초대하시려는 거예요. 꼭 놀러 와 주세요. 혹시 싫으신가요?”

“글쎄……. 그러면 일단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허락받은 후에 놀러 갈게.”

하녀의 말에 속으로 우쭐해진 나는 일부러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럼 도련님 댁까지 함께 가서 제가 어머님께 부탁을 드려 볼까요? 그런 후에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아니, 괜찮아. 집이 어디인지 아니까 나중에 혼자 갈게.”

“어머, 그러시겠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오세요.”

“그럼, 이따 봐.”

신이치를 향해 친근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 아이는 품위 있는 얼굴에 전혀 미소를 띠지 않고 의젓하게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오늘부터 이런 부잣집 아이와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웬지 기분이 좋아졌다. 평소 어울려 다니던 가발집 고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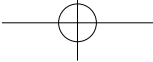
벧사공집 텃코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 교복을 벗고 줄무늬가 들어간 노란 비단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 저 놀다 올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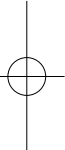
격자문에 대고 크게 외친 후, 겨울용 조리를 대충 껴신고 그대로 신이치네 집으로 달려 나갔다.

학교 앞으로 곧바르게 나 있는 나카노 다리를 건너 하마초의 오카다 요정 담벼락에 다다랐다. 나카스 강변에 있는 이 지역은 왠지 모르게 황량함이 느껴지는 한적한 곳이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오 다리 옆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유명한 경단 가게와 센베 가게가 있고, 맞은편 모퉁이에 길고 긴 담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철창문이 바로 신이치네 집이었다. 그 앞을 지나노라니 저택 안 울창한 정원의 푸른 잎들 사이로 삼각 지붕 모양의 일본관 기와가 은회색으로 빛났고 그 뒤로 서양관의 빛바랜 붉은 벽돌이 언뜻언뜻 보였는데 엄청난 부자가 살 것 같은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날은 저택 안에서 축제가 있어서인지 활기차고 떠들썩한 연주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 나왔고, 골목길로 나 있는 활짝 열린 뒷문으로는 인근에 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다. 정문 문지기에게 가서 신이치를 불러 달라고 부탁해 볼까 하다가 어쩐지 좀



두려운 생각에 그 아이들처럼 뒷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우와, 무슨 집이 이렇게 크지?’라고 생각하면서 호리병처럼 생긴 연못가 잔디밭에 잠시 멈춰 서서 넓디넓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지카노부가 그린 「지요다의 비밀 정원」이라는 세 폭짜리 그림에나 나올 법한 포석정, 돌산, 석등, 도자기로 만든 두루미, 수석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커다란 가름돌에서 작은 징검다리 여러 개가 길게 이어진 아득히 저 먼 곳에 궁궐 같은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 신이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자 아무래도 오늘은 만나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양탄자처럼 깔린 잔디를 밟으며 화창하고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놀고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한쪽 구석에 있는 오곡신 사당에서부터 골목길 쪽 뒷문까지 몇 걸음마다 재치 있는 말을 써넣은 행등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접대용 감주, 튀김, 단팔죽 등이 놓인 포장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흥을 돋우는 연주단과 씨름판을 벌린 아이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물려 있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놀러 왔던 나는 까닭 모를 실망감에 휩싸여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감주가 놓인 포장마차 앞에 다다랐는데 빨간 어깨띠를 두른 하녀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저기 학생, 감주 마시러 와요. 돈은 안 받아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지나친 후 곧이어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 앞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벗어진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다.

“학생! 튀김 먹으러 와요. 돈은 없어도 돼?”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매몰차게 대답한 후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 생각에 뒷문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감색의 짧은 걸옷을 걸친 한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학생, 아직 과자 못 받았지? 집에 갈 거면 과자 받아 가렴. 자, 이걸 가지고 저기 객실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가면 과자를 줄 테니 얼른 받아 가거라.”

그는 새빨갳게 물들인 과자 표를 건네주었다. 일순간 가슴속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혹시 객실에 가면 신이치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표를 받아 들고 다시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행히도 얼마 안 있어 신이치의 시중을 들던 하녀를 만났다.

“어머, 도련님! 잘 오셨어요. 아까부터 이제나저제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미천한 아이들 틈에 어울려 계시다니……. 안 됩니다.”

그녀가 친절하게 손을 잡아 주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어린이 키 정도 높이의 툇마루를 따라 정원 쪽으로 튀어나온 널찍한 객실의 뒤편으로 돌아가자, 열 평 남짓한 안뜰 앞에 싸리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객실이 나왔다.

“도련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벽오동나무 아래에서 하녀가 큰 소리로 외치자 장지문 안쪽에서 종종거리며 달려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리 올라와!”

격양된 목소리로 외치며 신이치가 툇마루로 달려 나왔다.

‘어? 저 겁쟁이가, 어디를 작동시키면 저런 힘찬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의아하게 여기며 몰라볼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은 친구의 모습을 눈부신 듯 쳐다보았다. 신이치는 가문의 문장이 아로새겨진 부드러운 검은색 비단 통소매의 정식 예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검은색 비단 옷감이 툇마루 가득히 비추는 눈부신 태양을 정면으로 받아 은빛 모래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다미 여덟 장 크기의 깔끔한 방이었다. 방 안 가득 달콤한 향내가 감돌았는데 찹쌀떡 과자를 담은 상자 속에서 풍겨 나오는지 그 냄새가 달큰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더라도 한 듯 갈색과 황색의 줄무늬가 들어간 부드럽고 폭신한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다. 곧바로 하녀가 옷철이 된 찻상에 과자며 차, 찰밥에 여러 가지 과자를 곁들인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도련님, 마님께서 친구분과 사이좋게 드시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음식을 드시니까 너무 장난치지 마시고 얹전하게 노십시오.”

하녀는 머뭇거리는 내게 찰밥과 밤 과자를 권한 뒤 물러갔다.

고요하고 햇별이 잘 드는 방이었다. 태양빛으로 빨갛게 물든 장지문에 툇마루 끝에 있는 붉은 매화 그림자가 비추었고, 저 멀리 정원에서는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아이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뒤섞여 울려 퍼졌다. 마치 멀고도 먼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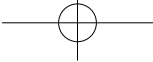
“신이치, 넌 항상 이 방에 있는 거야?”

“아니, 실은 여긴 누나 방이야. 저쪽에 재미있는 장난감 많이 있는데 보여 줄까?”

신이치는 작은 벽장 안에서 나라의 쇼조 인형, 정교하게 만들어진 노인과 노파의 탈, 교토의 전통 목각 인형, 후시미 지역의 찰흙 인형, 이즈쿠라 인형을 꺼내 주변에 예쁘게 늘어놓고 각양각색의 남녀 머리 인형을 다다미 틈새에 끼워서 빼곡하게 세워 놓았다. 두 사람은 이불에 엎드린 채 수염을 기르거나 눈을 드러낸 정교한 인형의 표정을 가까이서 훑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작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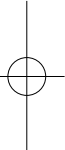
“여기 그림책도 많이 있다!”

신이치는 벽장 선반에서 가부키 배우인 한시로와 기쿠노조의 초상화가 가득 그려진 그림책 여러 권을 끄적거리며 끄집어내어 보여 주었다. 몇십 년이나 되었는지 모르는 목판 인쇄의 극채색이 광택조차 바래지 않고 선명하게 빛나는 미농지 겉표지를 열자 귀취한 냄새가 확 코를 찔렀고, 보풀이 일어난 종이 위에 옛 막부 시대의 아름다운 남녀가 나타났다. 그 모습은 이목구비에서부터 생기가 넘쳐흐렀고 섬세한 손과 발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신이치네 저택과 똑같이 생긴 궁궐 안뜰에서 공주님이 여러 시녀들과 함께 반딧불을 뒤쫓는가 하면, 스산한 다리 옆에서는 샷갯을 길게 늘려쓴 무사가 시종의 목을 내려치고 나서 시체의 품속에서 찾아낸 편지를 달빛에 비추어 읽고 있었다. 그다음 장에는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한 수상한 자가 방 안으로 몰래 숨



어 들어가, 올린 머리를 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공녀의 목을 이불 위에서 칼로 찌르고 있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행등의 희미한 불빛이 드리운 가운데 피가 똑똑 떨어지는 면도칼을 입에 문 요염한 잡옷 차림의 여인이 허공을 붙잡고 발밑에 쓰러진 죽은 남자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면서 “끝 좋게 됐군.”이라 말하며 서 있었다.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들여다본 것은 기괴한 살인 장면이었다. 눈알이 튀어나온 시체의 얼굴, 두 동강 난 몸뚱아리에 다리만 남은 채 서 있는 사람, 검붉은 핏자국이 마치 구름처럼 얼룩져 있는 기이한 그림을 완전히 낮이나간 채 들여다보았다.

“어머, 신짱! 너 또 남의 물건으로 못된 장난치는 거지!”



화려하게 나염된, 소매가 긴 기모노를 입은 열서너 살의 여자가 이가 미닫이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좁은 이마에 야무진 눈매와 입매를 가진 소녀는 마치 어린애처럼 씩씩 화를 내면서 우뚝 선 채로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신이치도 주눅이 들 대로 들어 얼굴이 창백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 같을 걸 칠 리가 있겠어? 그냥 친구한테 보여 주는 거잖아!”

마치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듯 누나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림책을 넘기며 말했다.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어머, 안 된다니까!”

누나는 종종걸음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보고 있던 책을 잡아채려 했지만 신이치도 좀처럼 놓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매듭이 뜯겨져 나갈 듯 책의 겉표지와 뒷면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기며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노려보았다.

“야, 이 구두쇠야! 다시는 안 빌릴 거야!”

신이치가 갑자기 책을 집어던졌다. 마침 옆에 있던 나라 인형도

집어 들어 누나의 얼굴을 향해 던졌지만 빛나가서 장식단 벽에 가 부딪혔다.

“거봐.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어, 너 또 나 때렸어! 좋아, 때리고 싶으면 더 때려 봐. 이것 봐! 너 때문에 지난번 멍든 자국도 아직 이렇게 남아 있잖아. 이거 아버지한테 보여 주고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일러 줄 테니까 각오해!”

원망스러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누나는 비단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새하얀 오른쪽 정강이에 남아 있는 멍 자국을 보여 주었다. 무릎에서 종아리에 걸쳐 혈관이 새파랗게 들여다보이는 얇고 보드라운 피부 위에 보라색 반점이 마치 물든 것처럼 애처롭게 드러났다.

“이르고 싶으면 맘대로 일러 봐! 이 구두쇠야!”

신이치는 인형을 마구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우리 정원에 가서 놀자!”

신이치는 나를 데리고 그곳에서 뛰쳐나왔다.

“네 누나, 지금도 울고 있을까?”

밖으로 나오자 미안하면서도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 물어보았다.

“울어도 상관없어. 맨날 싸워서 울리는걸. 누나라 해도 첩의 자식인데 뭘.”

신이치는 건방지게 말을 내뱉더니 서양관과 일본관 사이에 높이 서 있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그늘로 걸어 들어갔다. 오래된 고목나무 가지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곳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으스스했고 질척거리는 땅에는 푸른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그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우리의 목 언저리로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근처에는 늪이나 연못도 없는데 오래된 우물의 흔적인지 탁한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그 위에 청록색 수초가 둥둥 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눅눅한 흙냄새를 맡으며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고 그곳에

앉아 녹녹한 흙냄새를 맡으며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고 멍하니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그윽하고 신비한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무슨 소리지?”

정신을 집중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나가 치는 피아노 소리야.”

“피아노가 뭐데?”

“오르간 같은 거라고 누나가 말해 줬어. 매일 외국 여자가 서양관에 와서 누나를 가르치거든.”

신이치는 서양관 2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홍색 커튼이 쳐진 창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울림……. 때로는 숲속 요괴의 웃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동화 속에서 난쟁이들이 빼곡히 한데 어울려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수천 개의 섬세한 상상의 비단 색실로 어린 마음에 미묘한 꿈을 한 땀 한 땀 새겨 넣는 그 신비로운 울림은 마치 이 오래된 늙은 밑바닥에서 퍼져 나오는 연주 소리 같다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연주가 끝났는데도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황홀감의 끝자락을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당장이라도 그 외국인과 누나가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꼼짝 않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신짱, 너 저기에는 안 놀러 가니?”

“장난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절대로 들여보내 주지 않으셔. 언젠가 살짝 가 봤는데 문이 잠겨서 아무리 해도 안 열리더라고.”

우리 둘 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2층을 올려다보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셋이서 같이 놀까요?”

뒤돌아보니 달려오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같은 학교 한두 학년 위의 남자아이였는데, 그 이름까지는 몰랐지만 매일같이 후배를 괴롭히기로 유명한 골목대장이어서 얼굴만큼은 익히 알고 있었다.

‘왜 저 아이가 여기에 온 걸까?’

의아해하면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센키치, 센키치?”라고 함부로 불러 대는 신이치에게 오히려 “도련님, 도련님!” 하면서 비위를 맞춰 주고 있었다. 나중에 듣자 하니 신이치네 집 마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나로서는 맹수를 다루는 서커스의 미녀 조련사를 보는 시선으로 신이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순경 놀이를 하자! 우리 둘이 순경할 테니까 네가 도둑을 해!”

“제가 도둑인 건 상관 없지만, 지난번처럼 너무 심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도련님이 새끼줄로 묶고 코딱지 붙였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무척 놀랐지만, 여자아이처럼 곱상한 신이치가 난폭한 곰같이 생긴 센키치를 퐁퐁 묶어서 괴롭히는 모습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순경이 된 우리는 늪 주위와 나무숲 사이를 누비며 도둑인 센키치를 쫓아다녔다. 우리는 둘인데도 나이가 많은 센키치를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서양관 뒤쪽 담 구석에 있는 헛간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조용히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뒤 숨을 죽이며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헛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디에 숨었는지 그 어디에서도 센키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둑어둑한 헛간에서는 된장과 간장이 담긴 통에서 나는 케케묵은 냄새가 숨 막힐 듯 진동했고, 거미집이 주렁주렁 달린 지붕 밑과 나무통 주위를 꿈실꿈실 기어 다니는 쥐머느리의 모습은 어쩐지 신기하고 재미난 장난거리가 숨어 있다며 어린아이들을 부추기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킁킁 소리 죽여 웃는 소리가 들렸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던 바구니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와악!” 하고 센키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야! 내려와. 안 내려오면 따끔한 맛을 보여 줄 거야!”

신이치는 밑에서 고함을 쳤고 우리는 함께 빛자루로 센키치의 얼굴을 찌르려 했다.

“어디 와 봐요! 누구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오줌을 갈겨 줄 테니!”

당장이라도 소변을 볼 것 같은 센키치의 행동에 신이치는 바구니 바로 밑으로 다가가 옆에 있던 장대를 들더니 바구니 틈 사이로 센키치의 엉덩이와 발바닥 여기저기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다.

“자, 이래도 안 내려올 테냐!”

“아야, 아야, 도련님! 이제 내려갈게요. 용서해 주세요요!”

비명을 지르며 빌던 센키치가 아픔을 참으며 내려오자 신이치가 재빨리 그 아이의 목살을 잡아채더니 엉터리 심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뭘 훔쳤는지 솔직하게 자백해!”

곧이어 센키치는 포목점 시로키야에서 옷감을 다섯 필 훔쳤다는 등 그 유명한 닌벤에서 가다랑어포를 훔쳤다는 등 일본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등 열토당토않은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늘어놓았다.

“음……. 그래? 아주 뻔뻔스러운 녀석이로군. 나쁜 짓 한 게 더 있을 텐데! 사람을 죽인 적은 없나?”

“예, 있습니다. 구마가이 제방에서 안마사를 죽이고 오십 냥이 든 지갑을 훔쳤습죠. 그 돈으로 요시와라 유곽에 갔습니다.”

엉터리 연극이나 노조키카라쿠리에서 봤는지 센키치는 능숙하게 임기응변으로 척척 대답하였다.

“그거 말고도 더 죽였지! 좋아, 좋아! 말을 안 하는군.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고문을 하겠다!”

“그게 다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센키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지만 신이치는 그 말을 귀담아도 듣지 않고 센키치가 매고 있던 피죄죄한 연노랑 모직물 허리띠를 쟁쟁게 풀어내더니 그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은 다음, 남은 끈으로 양발의 복사뼈까지 재빨리 능숙하게 묶어댔다. 이윽고 센키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뺨을 꼬집고 눈꺼풀 안쪽 빨간 부분을 까뒤집어서 흰자위를 튀어나오게 하고 귓볼과 입술 가장자리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아역 배우나 어린 게이샤의 손갈이 가

날프고 창백한 신이치의 손끝이 교묘하게 움직이며 거칠고 거무튀튀한 살결에 보기 흉하게 살찐 센키치의 얼굴 근육을 마치 고무처럼 재미나게 늘리거나 오그라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이내 실증이라도 났는지 이렇게 외쳤다.

“잠깐 기다려 봐! 넌 죄인이니 이마에 문신을 새겨 줄 테다!”

신이치는 옆에 있던 숲 가마니 속에서 사쿠라 숲을 꺼내더니 침을 탁 뱉은 후 센키치의 이마에 대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무지막지한 행동에 처음에는 괴상하게 일그러져 당장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표정으로 질질 짜며 울던 센키치는 끝내 그럴 끈기마저 잃었는지 신이치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평소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강하고 거칠게 굴던 골목대장인 그 아이가 오로지 신이치를 위해 처참한 몰골로 마치 도깨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전혀 느껴 본 적이 없는 일종의 신기한 쾌감에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학교에서 앙갚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장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잠시 후 묶여 있던 허리띠를 풀어 주자 센키치는 원망스러운 듯 신이치의 얼굴을 흘겨보더니 힘없이 축 늘어져 납작 엎드린 채 말을 걸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해도 또다시 축 늘어지며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우리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모습을 살피며 잠자코 서 있었다.

“야야, 괜찮아?”

신이치가 거칠게 센키치의 목덜미를 잡아채더니 뒤로 젖혀 보았다. 그사이에 센키치는 우는 흥내를 내며 옷소매로 더러워진 얼굴을 반 정도 닦아 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세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와하하하하!”

“우리 이번에는 다른 거 하면서 놀자.”

“도련님, 이제 심한 장난은 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심하게 멍이 들었잖아요.”

그의 손목에는 빨강색 묶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늑대가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나그네를 해. 그리고 너네 둘이 나중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신이치의 또 다른 제안에 나는 어쩐지 섬뜩했지만, 센키치는 선뜻 대답했

다.

“네, 그러지요?”

달리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다. 나와 센키치가 나그네 역할인데 이 헛간을 사당이라 치고 노숙을 하고 있으면 한밤중에 늑대인 신이치가 습격해서 문밖에서 계속해서 울부짖기로 했다. 마침내 늑대가 문을 물어뜯어 부순 뒤 사당 안으로 기어 들어와 개인지 소인지 모를 희한한 울음소리를 내며 도망 다니는 두 나그네를 쫓아다녔다. 너무나 진지한 신이치의 행동에 붙잡히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밀려와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실상은 가마니 위로, 멍석 뒤편으로 죽을힘을 다해 도망쳐 다녔다.

“아, 센키치! 넌 이미 다리를 뜯겼으니까 걸으면 안 돼!”

늑대인 신이치는 이렇게 외치며 나그네인 센키치를 사당 구석으로 몰아넣더니 그 몸 위로 펼쳐 뛰어올라 여기저기를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러자 센키치는 마치 배우처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부릅뜨거나 입술을 일그러뜨리면서 다양한 몸짓으로 실감 나게 연기를 해 댔다. 그러다 결국에는 목을 물어뜯겼고, “악!” 하는 외마디 비명 소리를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더니 허공을 부여잡고 폭 고구라졌다.

‘그럼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서둘러 나무통 위로 뛰어 올라 갔지만 늑대가 밑에서 옷자락을 물더니 엄청난 힘으로 세차게 잡아당겼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 나무통을 있는 힘껏 붙잡아 보았지만 과격한 늑대의 성난 모습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체념한 순간 밑으로 떨어지며 땅바닥에 벌렁 나자빠지자 신이치가 질풍처럼 달려들어 내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자, 이제 두 사람 다 죽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면 안 돼! 이제 부터 뼈까지 다 훑아 줄 테니.”

신이치의 말에 우리는 불쌍사나운 모습으로 대자로 땅바닥에 쓰러진 채 움짱 달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몸 이곳저곳이 간지러워졌고 벌어진 옷자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가랑이까지 솔솔 스며들었다. 쪽 뺨은 오른손 손가락 끝이 센키치의 머리카락에 살짝 닿아 있는 느낌이었다.

“이 녀석이 살썩서 더 맛있어 보이는군. 그럼 먼저 먹어 치워 볼까?”

오프셋인쇄 견본 — 사륙판

산돌 정체 630

2019년 5월

(주)산돌

송미연×박수현×김초롱×심우진

!

「소년」—— 다니자키 준이치로, 민음사, 2018

벌써 이십 년 전의 일이다. 내가 겨우 열 살이나 되었을까. 가키가라초 2번가 집에서 스이텐구 뒤쪽 아리마 학교에 다녔을 때였으니 말이다. 흐릿하게 안개 낀 하늘을 뚫고 나온 햇살이 닌교초 거리에 늘어선 상가의 푸르른 포렴을 따스하게 비추는, 막연하고 꿈같은 동심에도 어쩐지 봄이 느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었다.

화창하게 갠 어느 따뜻한 날이었다. 졸음이 쏟아질 것 같던 오후 수업을 마치고 먹물이 잔뜩 묻은 손으로 주판을 쥐고 학교 문을 막 나서려고 할 때였다.

“하기와라 에이!”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허겁지겁 뒤쫓아 왔다. 같은 반 아이, 하나와 신이치였다. 입학 당시부터 소학교 4학년인 지금까지 시중드는 하녀가 한시도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소문난 겁쟁이였다가 아이들에게는 소심쟁이에 울보라는 놀림을 받으며 함께 놀 친구 하나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쫄처럼 말을 걸어온 적이 없는 아이였기에 의아한 생각에 그 아이와 하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 집 정원에서
오곡신 축제가 열리거든.”

신이치는 마치 주홍 비단 끈으로 묶어 놓은 것 같은
조그마한 입술로 다정하지만 조금 머뭇거리며 말을
건넸고 그 눈빛은 간절해 보였다. 언제나 주눅이 들어
외톨이로 있던 아이가 어째서 이런 뜻밖의 말을 건네는지
잠시 당황해서 그 아이의 표정을 읽어 내기라도 하려는듯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평상시에는 겁쟁이니 뭐니
험담을 해 대며 마구 괴롭혔지만, 막상 눈앞에 놓고 보니
역시 부잣집 도련님답게 품격 있고 고상해 보였다.
명주로 된 통소매에, 하카다에서 진상품으로 올라온
허리띠를 매고 줄무늬가 들어간 노란색 비단 겹옷에
옥양목으로 된 흰색 버선과 겨울용 조리를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뚝한 코에 희고 가름한 얼굴과 잘
어울려서 새삼스레 그 품위에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
넋을 잃고 말았다.

“하기와라 도련님, 저희 도련님과 함께 놀아
주시겠어요? 실은 오늘, 저희 집에서 축제를 연답니다.

되도록이면 암전하고 귀여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모시고 오라는 마님의 분부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련님께서 하기와라 도련님을 초대하시려는 거예요. 꼭 놀러 와 주세요. 혹시 싫으신가요?”

“글쎄……. 그러면 일단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허락받은 후에 놀러 갈게.”

하녀의 말에 속으로 우쭐해진 나는 일부러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럼 도련님 댁까지 함께 가서 제가 어머님께 부탁을 드려 볼까요? 그런 후에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아니, 괜찮아. 집이 어디인지 아니까 나중에 혼자 갈게.”

“어머, 그러시겠어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오세요.”

“그럼, 이따 봐.”

신이치를 향해 친근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 아이는 품위 있는 얼굴에 전혀 미소를 띠지 않고 의젓하게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오늘부터 이런 부잣집 아이와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웬지 기분이 좋아졌다. 평소 어울려 다니던 가발집 고키치,

벧사공집 텃코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 교복을 벗고 줄무늬가 들어간 노란 비단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 저 놀다 올게요!”

격자문에 대고 크게 외친 후, 겨울용 조리를 대충 꿰신고 그대로 신이치네 집으로 달려 나갔다.

학교 앞으로 곧바르게 나 있는 나카노 다리를 건너 하마초의 오카다 요정 담벼락에 다다랐다. 나카스 강변에 있는 이 지역은 왠지 모르게 황량함이 느껴지는 한적한 곳이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오 다리 옆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유명한 경단 가게와 센베 가게가 있고, 맞은편 모퉁이에 길고 긴 담으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철창문이 바로 신이치네 집이었다. 그 앞을 지나노라니 저택 안 울창한 정원의 푸른 잎들 사이로 삼각 지붕 모양의 일본관 기와가 은회색으로 빛났고 그 뒤로 서양관의 빛바랜 붉은 벽돌이 언뜻언뜻 보였는데 엄청난 부자가 살 것 같은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날은 저택 안에서 축제가 있어서인지 활기차고 떠들썩한 연주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 나왔고, 골목길로 나 있는 활짝 열린 뒷문으로는 인근에 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다. 정문 문지기에게 가서 신이치를 불러 달라고 부탁해 볼까 하다가 어쩐지 좀

두려운 생각에 그 아이들처럼 뒷문을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우와, 무슨 집이 이렇게 크지?’라고 생각하면서 호리병처럼 생긴 연못가 잔디밭에 잠시 멈춰 서서 넓디넓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지카노부가 그린 「지요다의 비밀 정원」이라는 세 폭짜리 그림에나 나올 법한 포석정, 돌산, 석등, 도자기로 만든 두루미, 수석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커다란 가름돌에서 작은 징검다리 여러 개가 길게 이어진 아득히 저 먼 곳에 궁궐 같은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 신이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자 아무래도 오늘은 만나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양탄자처럼 깔린 잔디를 밟으며 화창하고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놀고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한쪽 구석에 있는 오곡신 사당에서부터 골목길 쪽 뒷문까지 몇 걸음마다 재치 있는 말을 써넣은 행등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접대용 감주, 튀김, 단팔죽 등이 놓인 포장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흥을 돋우는 연주단과 씨름판을 벌린 아이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 있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놀러 왔던 나는 까닭 모를 실망감에 휩싸여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감주가 놓인 포장마차 앞에 다다랐는데 빨간 어깨띠를 두른 하녀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저기 학생, 감주 마시러 와요. 돈은 안 받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지나친 후 곧이어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 앞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벗어진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다.

“학생! 튀김 먹으러 와요. 돈은 없어도 돼!”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매몰차게 대답한 후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 생각에 뒷문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검색의 짧은 걸음을 걸친 한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학생, 아직 과자 못 받았지? 집에 갈 거면 과자 받아 가렴. 자, 이걸 가지고 저기 객실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가면 과자를 줄 테니 얼른 받아 가거라.”

그는 새빨갳게 물들인 과자 표를 건네주었다. 일순간 가슴속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지만, 혹시 객실에 가면 신이치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표를 받아 들고 다시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행히도 얼마 안 있어 신이치의 시종을 들던 하녀를 만났다.

“어머, 도련님! 잘 오셨어요. 아까부터 이제나저제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미천한 아이들 틈에 어울려 계시다니……. 안 됩니다.”

그녀가 친절하게 손을 잡아 주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곧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어린이 키 정도 높이의 뒷마루를 따라 정원 쪽으로 튀어나온 널찍한 객실의 뒤편으로 돌아가자, 열 평 남짓한 안뜰 앞에 싸리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객실이 나왔다.

“도련님,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벽오동나무 아래에서 하녀가 큰 소리로 외치자 장지문 안쪽에서 종종거리며 달려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리 올라와!”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며 신이치가 뒷마루로 달려 나왔다.

‘어? 저 겁쟁이가, 어디를 작동시키면 저런 힘찬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의아하게 여기며 몰라볼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은 친구의 모습을 눈부신 듯 쳐다보았다. 신이치는 가문의 문장이 아로새겨진 부드러운 검은색 비단 통소매의 정식 예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검은색 비단 옷감이 뒷마루 가득히 비추는 눈부신 태양을 정면으로 받아 은빛 모래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다다미 여덟 장 크기의 깔끔한 방이었다. 방 안 가득 달콤한 향내가 감돌았는데 찹쌀떡 과자를 담은 상자 속에서 풍겨 나오는지 그 냄새가 달큰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더라도 한 듯 갈색과 황색의 줄무늬가 들어간 부드럽고 폭신한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다. 곧바로 하녀가 옷철이 된 찻상에 과자며 차, 찰밥에 여러 가지 과자를 곁들인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도련님, 마님께서 친구분과 사이좋게 드시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음식을 드시니까 너무 장난치지 마시고 얹전하게 노십시오.”

하녀는 머뭇거리는 내게 찰밥과 밥 과자를 권한 뒤 물러갔다.

고요하고 햇별이 잘 드는 방이었다. 태양빛으로 빨갛게 물든 장지문에 뒷마루 끝에 있는 붉은 매화 그림자가 비추었고, 저 멀리 정원에서는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아이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뒤섞여 울려 퍼졌다. 마치 멀고도 먼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이치, 넌 항상 이 방에 있는 거야?”

“아니, 실은 여긴 누나 방이야. 저쪽에 재미있는 장난감 많이 있는데 보여 줄까?”

신이치는 작은 벽장 안에서 나라의 쇼조 인형, 정교하게 만들어진 노인과 노파의 탈, 교토의 전통 목각 인형, 후시미 지역의 찰흙 인형, 이즈쿠라 인형을 꺼내 주변에 예쁘게 늘어놓고 각양각색의 남녀 머리 인형을 다다미 틈새에 끼워서 빼곡하게 세워 놓았다. 두 사람은 이불에 엮드린 채 수업을 기르거나 눈을 드러낸 정교한 인형의 표정을 가까이서 훑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작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여기 그림책도 많이 있다!”

신이치는 벽장 선반에서 가부키 배우인 한시로와 기쿠노조의 초상화가 가득 그려진 그림책 여러 권을 끄적거리며 끄집어내어 보여 주었다. 몇십 년이나 되었는지 모르는 목판 인쇄의 극채색이 광택조차 바래지 않고 선명하게 빛나는 미농지 겉표지를 열자 귀취한 냄새가 확 코를 찔렀고, 보풀이 일어난 종이 위에 옛 막부 시대의 아름다운 남녀가 나타났다. 그 모습은 이목구비에서부터 생기가 넘쳐흐렀고 섬세한 손과 발끝까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신이치네 저택과 똑같이 생긴 궁궐 안뜰에서 공주님이 여러 시녀들과 함께 반딧불을 뒤쫓는가 하면, 스산한 다리 옆에서는 샷갯을 길게 둘러쓴 무사가 시종의 목을 내려치고 나서 시체의 품속에서 찾아낸 편지를 달빛에 비추어 읽고 있었다. 그다음 장에는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한 수상한 자가 방 안으로 몰래 숨

어 들어가, 올린 머리를 한 채 깊이 잠들어 있는 공녀의 목을 이불 위에서 칼로 찌르고 있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행동의 희미한 불빛이 드리운 가운데 피가 똑똑 떨어지는 면도칼을 입에 문 요염한 잠옷 차림의 여인이 허공을 붙잡고 발밑에 쓰러진 죽은 남자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면서 “꿀꿀게 됐군.”이라 말하며 서 있었다.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들여다본 것은 기괴한 살인 장면이었다. 눈알이 튀어나온 시체의 얼굴, 두 동강 난 몸뚱아리에 다리만 남은 채 서 있는 사람, 검붉은 핏자국이 마치 구름처럼 얼룩져 있는 기이한 그림을 완전히 낮이 나간 채 들여다보았다.

“어머, 신짱! 너 또 남의 물건으로 못된 장난치는 거지!”

화려하게 나염된, 소매가 긴 기모노를 입은 열서너 살의 여자가 이가 미달이문을 열고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좁은 이마에 야무진 눈매와 입매를 가진 소녀는 마치 어린애처럼 씩씩 화를 내면서 우뚝 선 채로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신이치도 주눅이 들 대로 들어 얼굴이 창백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난 같을 걸 칠 리가 있겠어? 그냥 친구한테 보여 주는 거잖아!”

마치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듯 누나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림책을 넘기며 말했다.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어머, 안 된다니까!”

누나는 종종걸음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보고 있던 책을 잡아채려 했지만 신이치도 좀처럼 놓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매듭이 뜯겨져 나갈 듯 책의 겉표지와 뒷면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기며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노려보았다.

“야, 이 구두쇠야! 다시는 안 빌릴 거야!”

신이치가 갑자기 책을 집어던졌다. 마침 옆에 있던 나라 인형도

집어 들어 누나의 얼굴을 향해 던졌지만 빛나가서 장식단 벽에 가 부
딴쳤다.

“거봐.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 어, 너 또 나 때렸어! 좋아, 때리
고 싶으면 더 때려 봐. 이것 봐! 너 때문에 지난번 멍든 자국도 아직
이렇게 남아 있잖아. 이거 아버지한테 보여 주고 네가 어떤 짓을 했
는지 일러 줄 테니까 각오해!”

원망스러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누나는 비단 옷자락을 걷어 올
리고 새하얀 오른쪽 정강이에 남아 있는 멍 자국을 보여 주었다. 무
릎에서 종아리에 걸쳐 혈관이 새파랗게 들여다보이는 얇고 보드라
운 피부 위에 보라색 반점이 마치 물든 것처럼 애처롭게 드러났다.

“이르고 싶으면 맘대로 일러 봐! 이 구두쇠야!”

신이치는 인형을 마구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

“우리 정원에 가서 놀자!”

신이치는 나를 데리고 그곳에서 뛰쳐나왔다.

“네 누나, 지금도 울고 있을까?”

밖으로 나오자 미안하면서도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 물어보았다.

“울어도 상관없어. 맨날 싸워서 울리는걸. 누나라 해도 첩의 자
식인데 뭘.”

신이치는 건방지게 말을 내뱉더니 서양관과 일본관 사이에 높
이 서 있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그늘로 걸어 들어갔다. 오래된 고목나
무 가지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곳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으
스스했고 질척거리는 땅에는 푸른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그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우리의 목 언저리로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근
처에는 늪이나 연못도 없는데 오래된 우물의 흔적인지 탁한 물웅덩
이가 고여 있었고 그 위에 청록색 수초가 둥둥 떠 있었다. 우리는 그
곳에 앉아 눅눅한 흙냄새를 맡으며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고 그곳에

앉아 녹녹한 흙냄새를 맡으며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고 멍하니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그윽하고 신비한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무슨 소리이지?”

정신을 집중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나가 치는 피아노 소리야.”

“피아노가 뭐데?”

“오르간 같은 거라고 누나가 말해 줬어. 매일 외국 여자가 서양관에 와서 누나를 가르치거든.”

신이치는 서양관 2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홍색 커튼이 쳐진 창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신비로운 울림……. 때로는 숲속 요괴의 웃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동화 속에서 난쟁이들이 빼곡히 한데 어울려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수천 개의 섬세한 상상의 비단 색실로 어린 마음에 미묘한 꿈을 한 땀 한 땀 새겨 넣는 그 신비로운 울림은 마치 이 오래된 늙은 밀바닥에서 퍼져 나오는 연주 소리 같다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연주가 끝났는데도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황홀감의 끝자락을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당장이라도 그 외국인과 누나가 얼굴을 내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꼼짝 않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신짱, 너 저기에는 안 놀러 가니?”

“장난치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절대로 들여보내 주지 않으셔. 언젠가 살짝 가 봤는데 문이 잠겨서 아무리 해도 안 열리더라고.”

우리 둘 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2층을 올려다보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셋이서 같이 놀까요?”

뒤돌아보니 달려오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같은 학교 한두 학년 위의 남자아이였는데, 그 이름까지는 몰랐지만 매일같이 후배를 괴롭히기로 유명한 골목대장이어서 얼굴만큼은 익히 알고 있었다.

‘왜 저 아이가 여기에 온 걸까?’

의아해하면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센키치, 센키치?”라고 함부로 불러 대는 신이치에게 오히려 “도련님, 도련님!” 하면서 비위를 맞춰 주고 있었다. 나중에 듣자 하니 신이치네 집 마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나로서는 맹수를 다루는 서커스의 미녀 조련사를 보는 시선으로 신이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순경 놀이를 하자! 우리 둘이 순경할 테니까 네가 도둑을 해!”

“제가 도둑인 건 상관없지만, 지난번처럼 너무 심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도련님이 새끼줄로 묶고 코딱지 붙였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무척 놀랐지만, 여자아이처럼 곱상한 신이치가 난폭한 곰같이 생긴 센키치를 퐁퐁 묶어서 괴롭히는 모습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순경이 된 우리는 늪 주위와 나무숲 사이를 누비며 도둑인 센키치를 쫓아다녔다. 우리는 둘인데도 나이가 많은 센키치를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서양관 뒤쪽 담 구석에 있는 헛간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조용히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뒤 숨을 죽이며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헛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디에 숨었는지 그 어디에서도 센키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둑어둑한 헛간에서는 된장과 간장이 담긴 통에서 나는 케케묵은 냄새가 숨 막힐 듯 진동했고, 거미집이 주렁주렁 달린 지붕 밑과 나무통 주위를 꿈실꿈실 기어 다니는 쥐머느리의 모습은 어쩐지 신기하고 재미난 장난거리가 숨어 있다며 어린아이들을 부추기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킁킁 소리 죽여 웃는 소리가 들렸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던 바구니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와악!” 하고 센키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야! 내려와. 안 내려오면 따끔한 맛을 보여 줄 거야!”

신이치는 밑에서 고향을 쳤고 우리는 함께 빗자루로 센키치의 얼굴을 찌르려 했다.

“어디 와 봐요! 누구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오줌을 갈겨 줄 테니!”

당장이라도 소변을 볼 것 같은 센키치의 행동에 신이치는 바구니 바로 밑으로 다가가 옆에 있던 장대를 들더니 바구니 틈 사이로 센키치의 엉덩이와 발바닥 여기저기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다.

“자, 이래도 안 내려올 테냐!”

“아야, 아야, 도련님! 이제 내려갈게요. 용서해 주세요요!”

비명을 지르며 빌던 센키치가 아픔을 참으며 내려오자 신이치가 재빨리 그 아이의 목살을 잡아채더니 엉터리 심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뭘 훔쳤는지 솔직하게 자백해!”

곧이어 센키치는 포목점 시로키야에서 옷감을 다섯 필 훔쳤다는 등 그 유명한 닌벤에서 가다랑어포를 훔쳤다는 등 일본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등 일도당토않은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늘어놓았다.

“음……. 그래? 아주 뻔뻔스러운 녀석이로군. 나쁜 짓 한 게 더 있을 텐데! 사람을 죽인 적은 없나?”

“예, 있습니다. 구마가이 제방에서 안마사를 죽이고 오십 냥이 든 지갑을 훔쳤습죠. 그 돈으로 요시와라 유곽에 갔습니다.”

엉터리 연극이나 노조키카라쿠리에서 봤는지 센키치는 능숙하게 임기응변으로 척척 대답하였다.

“그거 말고도 더 죽였지! 좋아, 좋아! 말을 안 하는군.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고문을 하겠다!”

“그게 다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센키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지만 신이치는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센키치가 매고 있던 피죄죄한 연노랑 모직물 허리띠를 찢파게 풀어내더니 그의 양손을 뒤로 돌려 묶은 다음, 남은 끈으로 양발의 복사뼈까지 재빨리 능숙하게 묶어맸다. 이윽고 센키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더니 뺨을 꼬집고 눈꺼풀 안쪽 빨간 부분을 까뒤집어서 흰자위를 튀어나오게 하고 귓볼과 입술 가장자리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아역 배우나 어린 게이샤의 손갈이 가

날프고 창백한 신이치의 손끝이 교묘하게 움직이며 거칠고 거무튀튀한 살결에 보기 흉하게 살찐 센키치의 얼굴 근육을 마치 고무처럼 재미나게 늘리거나 오그라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이내 싫증이라도 났는지 이렇게 외쳤다.

“잠깐 기다려 봐! 넌 죄인이니 이마에 문신을 새겨 줄 테다!”

신이치는 옆에 있던 숲 가마니 속에서 사쿠라 숲을 꺼내더니 침을 탁 뱉은 후 센키치의 이마에 대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무지막지한 행동에 처음에는 괴상하게 일그러져 당장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표정으로 질질 짜며 울던 센키치는 끝내 그럴 끈기마저 잃었는지 신이치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평소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강하고 거칠게 굴던 골목대장인 그 아이가 오로지 신이치를 위해 처참한 몸골로 마치 도깨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전혀 느껴 본 적이 없는 일종의 신기한 쾌감에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학교에서 앙갚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장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잠시 후 묶여 있던 허리띠를 풀어 주자 센키치는 원망스러운 듯 신이치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힘없이 축 늘어져 납작 엎드린 채 말을 걸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해도 또다시 축 늘어지며 쓰러지고 마는 것이었다. 우리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모습을 살피며 잠자코 서 있었다.

“야야, 괜찮아?”

신이치가 거칠게 센키치의 목덜미를 잡아채더니 뒤로 젖혀 보았다. 그사이 센키치는 우는 흥내를 내며 옷소매로 더러워진 얼굴을 반 정도 닦아 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세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와하하하하!”

“우리 이번에는 다른 거 하면서 놀자.”

“도련님, 이제 심한 장난은 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심하게 멍이 들었잖아요.”

그의 손목에는 빨갭게 묶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늑대가 될 테니까 두 사람은 나그네를 해. 그리고 너네 둘이 나중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거야.”

신이치의 또 다른 제안에 나는 어쩐지 섬뜩했지만, 센키치는 선뜻 대답했

다.

“네, 그러지요?”

달리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다. 나와 센키치가 나그네 역할인데 이 헛간을 사당이라 치고 노숙을 하고 있으면 한밤중에 늑대인 신이치가 습격해서 문밖에서 계속해서 울부짖기로 했다. 마침내 늑대가 문을 물어뜯어 부순 뒤 사당 안으로 기어 들어와 개인지 소인지 모를 희한한 울음소리를 내며 도망 다니는 두 나그네를 쫓아다녔다. 너무나 진지한 신이치의 행동에 붙잡히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밀려와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실상은 가마니 위로, 멍석 뒤편으로 죽을힘을 다해 도망쳐 다녔다.

“아, 센키치! 넌 이미 다리를 뜯겼으니까 걸으면 안 돼!”

늑대인 신이치는 이렇게 외치며 나그네인 센키치를 사당 구석으로 몰아넣더니 그 몸 위로 펼쳐 뛰어올라 여기저기를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러자 센키치는 마치 배우처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부릅뜨거나 입술을 일그러뜨리면서 다양한 몸짓으로 실감 나게 연기를 해 댔다. 그러다 결국에는 목을 물어뜯겼고, “악!” 하는 외마디 비명 소리를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더니 허공을 부여잡고 폭 고구라졌다.

‘그럼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라 서둘러 나무통 위로 뛰어 올라 갔지만 늑대가 밑에서 옷자락을 물더니 엄청난 힘으로 세차게 잡아당겼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 나무통을 있는 힘껏 붙잡아 보았지만 과격한 늑대의 성난 모습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체념한 순간 밑으로 떨어지며 땅바닥에 벌렁 나자빠지자 신이치가 질풍처럼 달려들어 내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자, 이제 두 사람 다 죽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면 안 돼! 이제 부터 뼈까지 다 훑아 줄 테니.”

신이치의 말에 우리는 불쌍사나운 모습으로 대자로 땅바닥에 쓰러진 채 움짱 달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몸 이곳저곳이 간지러워졌고 벌어진 옷자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가랑이까지 솔솔 스며들었다. 쪽 뺨은 오른손 손가락 끝이 센키치의 머리카락에 살짝 닿아 있는 느낌이었다.

“이 녀석이 살쥘서 더 맛있어 보이는군. 그럼 먼저 먹어 치워 볼까?”